

성경 66권을 하나로 관통하여 풀 수 있어야 구세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일의 행복과 낙원을 바라는 희망이 있는고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원을 바라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는 마음이 왜 생겼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로 피의 작용이며, 또한 사람의 마음은 경험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므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조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을 한 그 조상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있는고로 오늘날 죽기 싫어하는 마음, 기쁘게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 죽기 싫어하는 마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생명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인고로 오늘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아담과 헤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고 쓰여 있는데 에덴동산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살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며,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헤와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과 헤와가 원래 하나님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와가 흙으로 빚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아담과 헤와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

는다는 말이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이 되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마귀의 영이다

사실은 아담과 헤와 하나님에 에덴동산이 되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원 전사부터 영원무궁토록 살고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마귀에게 포로 되는 순간 이제그대로 남자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때려치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때려서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자손만대로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는고로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말인고로 선악과는 영적 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영적 과일이요,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죽이는 영이 선악과라는 것도 모르면서 오늘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으니 참말로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죽이는 영인고로 마귀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선악과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성경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악과가 되는 마귀에게 포로가 됴므로 말미



구세주 조희성님

아아 원래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었으나 마귀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었던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영에게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고로 양심이 있기는 있지만 자유로이 양심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양심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양심도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나라는 의식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 전체가 풀립니다.

생명과일은 이기신 하나님의 영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생명과일이 성경 말이며, 성경 말은 영적 말인고로 생명의 영적 과일이므로 영은 영인데 영생을 주는 영이요, 영생 주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데 사람을 이기는 영이냐 영생을 주는 영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영이냐 영생을 주게 되고, 나

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냐 영생을 주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인고로 그러므로 생명의 영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져 있는 모든 말씀의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아 생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음은 영생의 하나님의 영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믿음이라고 성경 예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믿음인고로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요, 영생의 신인고로 영생의 신을 선물로 주시지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선물로 줘 봐야 죽는데 죽음을 줘 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되고, 나를 없애 버려야 성경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사람이 되는고로 영적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무덤을 버려야, 영적 무덤을 파헤쳐 버려야 하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이 되어 성경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니까 바로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 부활이라고 따로 해석을 하고, 성경으로 거듭나는 것을 따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 다 같은 뜻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로 관통해서 풀어야 구세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짝을 맞춰서 66권을 하나로 엮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요, 구세주가 되는 거지 이제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인고로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 받는다고 했으므로 한 사람만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거듭나려면 나라는 자존심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씨앗이 자존심이고, 괴로움의 씨앗이 자존심이고, 병의 씨앗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시간이 나와 더불어 투쟁을 해야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 생활을 해야 이기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트레스도 안 받고, 나라는 게 없으면 누가 내 것을 가져가도 좋고, 누가 나를 때려도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좋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좋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요, 나라는 게 괴로움의 씨앗이요, 죽음의 씨앗이요, 병의 씨앗이 되는 고로 나라는 걸 빨리 없애 버리면 나라는 게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죽음과 상관 없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나 때문에 늙는 것이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는 것이지, 나이를 먹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종교

그러므로 종교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종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승리제단이 진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좌절하게끔 해야 그 사람이 종교가가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도가 완성된 자요, 그 사람이 성경으로 거듭나자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내가 됐을 때 바로 성경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고,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고, 믿음이 있다가 되는고로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시간이 나와 더불어 투쟁을 해야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대 생활을 해야 이기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1992년 4월 7일 말씀 중에서도

1면에서

번뇌를 끊겠다는 맹세, ③법문무량사원학(法門無量誓願學): 광대무변한 불타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달겠다는 맹세, ④불도무상사원성(佛道無上誓願成): 가장 존귀하고 그 이상 뛰어난 것이 없는 불도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러 성불하겠다는 맹세이다.

재조산하, 새 부대에 새 술을

재조산하(再造山河)는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결연한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혁명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다. 의지는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死即生 生即死)'의 결의로 죽기를 각오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는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 1961년 5.16 혁명 당시 혁명군들이 할맹으로 결의한 내용이다. 당시 한국군이 60만 명, 미군이 5만6000명인데 3600명의 병력으로 세상을 뒤집었으니 혁명의 성공을 기적이라 불렀다.

죽음과 다름의 파고가 높은 고해의 바다를 영생과 평화가 넘실대는 북극원으로 바꾸기 위한 인류역사의 마지막 혁명, 100전 100승의 해전(海戰)이 단 한 척의 구원의 방주 승리제단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기적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9대 대통령이 탄생했다. 대통령들의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 대통령의 가슴과 머리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것은 상상과 협치와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온전한 불사영생의 진리, 이긴자 구세주의 의지다.*

안병천 승사



부드럽고 깔끔하게 리드한 사회자 / 이승우 승사



하모니카 연주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는가 / 김원찬 승사



▲무궁화 합창단 / 적지만 파워풀한 음색을 보여줬다
▼유쾌 상쾌 통쾌 삼쾌를 선물한 미산 부산 연합 울동 및 한창



▲어디 내버도 손색이 없는 무궁화관현악단 연주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시는 박인숙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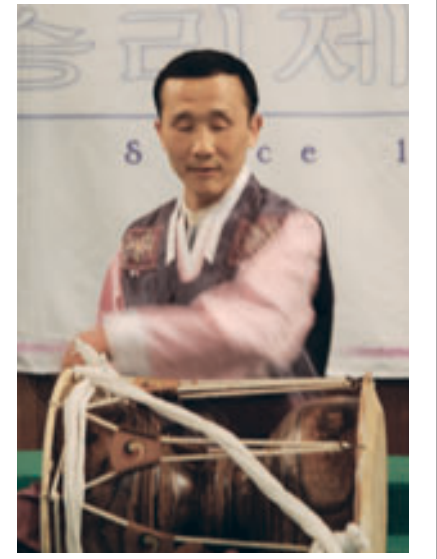
▲어디 내버도 손색이 없는 무궁화관현악단 연주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시는 박인숙 님



작은 거인 라준경 승사의 장구연주



'내 어머니 가지신 생명양식' 신곡을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김성우 음악총감독



작은 거인 라준경 승사의 장구연주

아버이 날 령 경축 행사 인류의 아버지 구세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